NYPi Bluenote
블루노트 이슈&정책 Issue&Policy
2026. March
통권
제161호
발행인 백일현 | **발행일** 2026년 3월 16일 |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1)]

김 성 은 선임연구위원
김 희 진 선임연구위원

요약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강화와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성인기 이행과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계획을 가진 비율도 높았지만, 반면, 진로 미결정·미준비 집단은 학업성취, 가족지지, 심리적 안녕 수준이 낮아 취약성이 두드러졌음. 또한, 진로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면접조사 참여자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취·창업도 계획하였으나 막연한 희망과 함께 생활관리의 어려움, 정보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진로발달 상황을 단순화하기 어려움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전문가 의견수렴에 따르면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이행/지속참여율이 낮아 사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현행 법·제도는 취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진로발달의 과정적·통합적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본 연구는 진로발달 관련 이론 및 법·제도 고찰과 양적질적 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개인화된 진로지원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법·제도 정비 및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함.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5년 고유 연구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지원 공백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로부터의 진로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진로지원의 공백이 존재하며, 학업중단 사실 자체로 진로장벽을 경험하기도 함.
- 학교 밖에서의 진로지원은 체험 및 단회기 중심이거나, 직업훈련 분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학생 대상의 진로교육은 미래사회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진로개발역량 함양에 초점이 있음.
- 「진로교육법」에서 말하는 진로개발역량은 진로구성이론과도 맥을 같이하는데, 자신의 특성과 직업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구성해가는 내적 과정(Savickas, 2020)이라 볼 수 있음.
- 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성인기의 삶에서도 여러 번 진로재탐색이 필요하다고 볼 때, 청소년 시기 진로지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나 법적·제도적으로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차원적 진로지원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실시되어야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일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전문성 있는 진로지원에 한계가 있음.
- 지역사회 내 진로지원, 교육, 체험을 전담으로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에도 센터와의 연계 운영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제반 제도에 대한 제안도 요구됨.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수요 다양화

-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학업중단 사유 가운데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가 최근 계속해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실제 인터뷰 사례에서도 진로설계의 일환으로 학교를 그만둔 후 스스로 및 가정지원을 통해 진로개발을 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가정 해체를 경험하였거나 경제적, 정신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진로고민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복합적인 진로위기 청소년도 존재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상태와 수요는 다양함.
- 실효적 정책 제안을 위하여, 특히 우선적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다체계적 연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진로 관련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을 조명하여 이를 반영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연구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진로발달과 진로 특성(진로 위기 포함) 탐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진로교육 관련 법·제도, 정책현황 분석 및 함의 도출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경험과 연계 현황 파악 및 분석, 정책 요구 수렴
-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체계적 정책방안 제안

연구 수행 체계

[그림 1] 연구 수행 체계

2. 연구결과

학교 밖 청소년과 진로 위기에 대한 문헌연구 결과

- 현황 :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은 커짐.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도 심리정신적 문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부모님의 권유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 이론고찰 : 전통적인 생애진로발달이론부터 최근의 진로구성주의까지 여러 이론을 검토함.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며, 청소년기에 미래 직업사회와 변화에 준비되지 못할 경우 성인기 이행 및 이후 삶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선행연구 : 학교로부터의 진로지원의 부재로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일부는 진로미결정과 미준비로 인하여 진로불안을 겪고 있었음. 개인적 진로발달 상황 미흡, 가정·환경적 지지 부족등을 겪음.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법 · 제도 분석 결과

- 정책 검토: 유관 중앙정부 다양한 진로 지원 정책 중 일부 학생 및 학교 단위로 신청을 제한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 수혜받고 있는 사업에서도 명목상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기도 함.
- 법령 검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 관련 법령에서는 청소년기 진로개발에 대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포함하고, 취업, 직업훈련,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있었음.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결과

- 향후 진로 계획이 있는 청소년은 69.5%, 현재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경우는 90.9%였음.
- 하고 있는 일과 진로 계획이 모두 없는 청소년은 학업중단 당시 학업성적이 낮고, 비행 경험이 높았으며, 부모의 무관심, 낮은 경제수준을 보였음. 현재 상태로는 무기력함,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진로직업태도 수준을 보였음.
- 이들 청소년은 또한 수당 지급 외에는 국가적 진로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와 참여 의사가 낮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진로 계획과 하고 있는 일이 모두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계획이 없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역시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IDI) 결과

- 청소년이 스스로 답한 진로결정 여부로는 실제 진로계획과 탐색, 준비 과정에 두드러진 질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진로발달 상황을 결정/미결정으로 이분화할 수는 없었음.
- 학교를 그만둔 주요 이유 : 친구 관계, 교사와의 갈등,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이었으나, 일부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음

- 진로상황 : 대학 진학 준비가 다수였으며, 취·창업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막연히 희망하기도 했고, 상당수 학교 지원 부재와 생활 관리 어려움, 정보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함.
- 진로지원 : 직업체험을 통해 관심이 커지는 경험을 하였고, 사전 상담 등을 통해 파악된 진로적성 및 흥미를 토대로 맞춤 인턴십 제공 시 실질적 진로준비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 지원 수요: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전문 학습지원과 대입상담, 인턴십·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확대 제공, 학원 수강료, 식비 등 실비 지원 등 각자의 상황과 진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FG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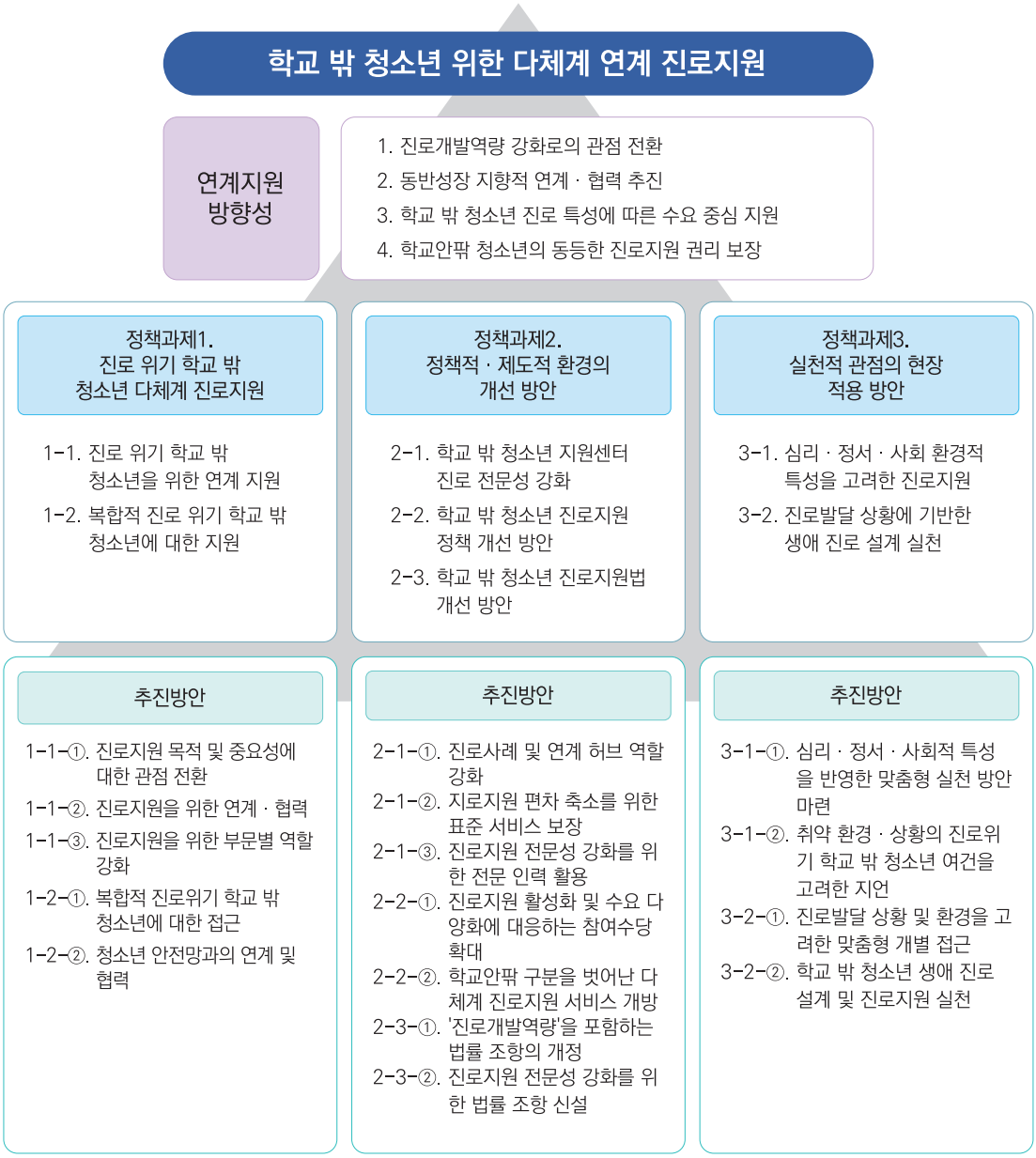
- 관련 현상 :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부모의 지원을 배경으로 한 사례도 많아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 위기 상태는 아니며, 이러한 사례가 증가 추세임이 보고됨.
- 주요 특성 : 심리·정서·사회·환경적 어려움으로 진로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더욱 취약한 진로 위기 청소년에 대해 국가적 진로지원의 책무성이 강조됨.
- 지원 현황 : 지역 자원의 차이와 특성, 기관장 및 실무자의 개인 역량, 센터 운영 형태와 주체에 따라 연계 지원 서비스의 편차가 크며, 표준적 형태의 제안 및 가이드라인이 요구됨.
- 지원 방식 : 진로지원의 전문성, 즉 진로지원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전문인력의 활용과 단기적, 일회성의 행사 참여보다 장기적인 진로설계지원 및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연계 현안 : 청소년 수요에 따른 진로지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는 필수적이며 중앙 단위 협력과 시도센터 중심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군구 센터로의 확산이 필요하며, 연계 기관 자원의 제약, 연계 지원의 근거 부족 및 실적 산정 등에서의 애로사항이 파악됨.

센터 종사자 대상 진로지원 현황 및 의견 조사 결과

- 청소년 진로 현황: 대부분 청소년이 다음 단계 진로계획이 있었으나, 장기적 계획이나 구체적인 준비 방법의 인지, 필요 정보 수집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센터 지원 영역: 교육(검정고시 포함)지원과 자립지원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진로지원영역에서는 직업체험, 기초기술훈련, 진로(상담)검사의 실시가 많았는데, 진로(상담)검사와 직업체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낮아 실제 실시 정도와는 차이가 있었음.
- 정부사업 이행: 여성가족부의 진로사업은 인지정도와 실시정도가 모두 높았으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사업에서는 각각 커리어넷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실시정도는 높지 않았음.
- 어려움 및 개선요구: 연계 실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성 있는 연계처와 양적 확대가 필요하였으며, 센터는 맞춤형 지원 연계 및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또한 가장 큰 어려움은 청소년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하는 것이었음.

3. 정책제언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조직하기 위한 4가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3개 영역에 대한 7가지 정책과제와 16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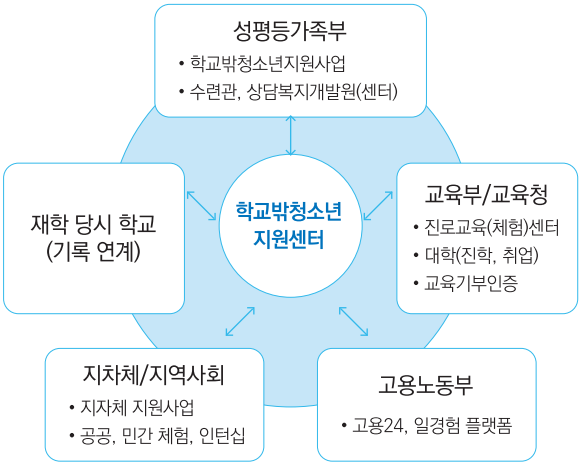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밖 청소년 다체계 진로지원을 위한 제언

연계지원 방향성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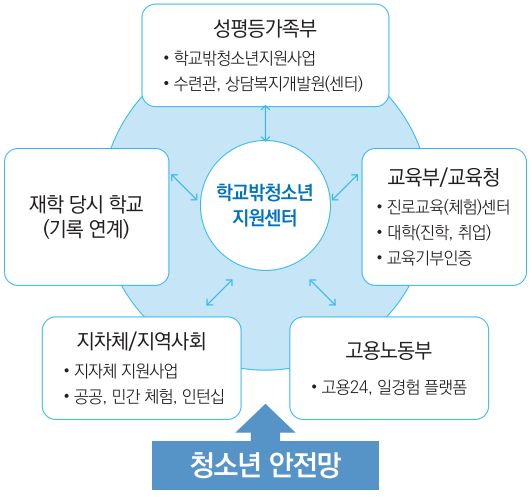
- 정책 방향으로 ①진로개발역량 강화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의 관점을 전환할 것과 ②연계·협력 기관 간 동반성장이 가능한 지원 방안일 것, 그리고 ③학교 밖 청소년 진로 특성에 따른 수요중심 지원을 포함하여 ④학교안팎 청소년의 동등한 진로지원 관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상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함[2]에 따라, 진로 위기 상태의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적 지원 및 개입이 요구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 그리고 보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복합적 위기 상태) 청소년을 위한 제안을 함께 하였음.

정책과제-추진방안 별 주요 내용

- '1.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다체계 진로지원'에서는 1-1.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 지원 방안과 1-2.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함.
- 1-1.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 지원 방안으로 먼저 진로지원의 방향성을 청소년기에 필요한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으로 전환할 것과 연계협력 대상이 되는 기관을 규명하고 각자의 역할을 제시하였음.
- 1-2. 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진로 설정이나 역량 개발의 어려움 뿐 아니라, 개인적, 상황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특히,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체계적 연계 방안을 도식화하면 아래(좌측)와 같고, 여기에 복합적 위기(경제적, 심리·신체적 어려움)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연계 방안을 함께(우측) 제시하였음.



[그림 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연계망 예



[그림 4] 복합적 진로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 예

2) 진로 미결정, 미준비 외에도 지원 부재, 진로불안, 심리정서적 어려움, 진로장벽, 가정/환경적 어려움

- ‘2. 정책적·제도적 환경 개선 방안’에서는 2-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진로 전문성 강화와 2-2.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개선 방안, 2-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법 개선 방안을 제안함.
- 2-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진로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진로포트폴리오 관리 중심의 허브 기능 강화, 센터 간 진로지원 분야 편차를 줄이는 표준안 마련, 적극적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풀 구축과 공유, 전문가 양성과 배치를 제안하였음.
- 2-2.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개선 방안에서는 청소년 참여 독려를 위한 참여 수당 지원과 서비스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진로지원 서비스 개방 확대를 제안하였음.
- 2-3.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법 개선 방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도 진로교육법과 같이 ‘진로개발 역량’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전문성 강화 토대 마련을 제안함.
- ‘3. 실천적 관점의 현장 적용 방안’에서는 3-1.심리·정서·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원 방안과 3-2.진로발달 상황에 기반한 생애 진로 설계 실천 방안을 제안함.
- 3-1. 심리·정서·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원 방안에서는 진로지원이 개인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상황 파악 및 이를 고려한 지원의 중요성을 사례와 함께 제안하였음.
- 3-2. 진로발달 상황에 기반한 생애 진로 설계 실천 방안에서는 전생애적 관점과 현재적 발달 상황을 고려한 접근 방안을 역시 실제 사례와 진로 발달 이론에 기반하여 제안하였음.

참고문헌

김성은, 김희진, 조혜영, 김현수, 변주영 (2025).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연구보고25-기본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Savickas, M. L. (2020).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counseling model.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165-199). NJ: John Wiley & Son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D동 6/7층
전화 044-415-2114 팩스 044-415-2349 www.nypi.re.kr